



약진하는 벤처의 여름

핸디소프트, 노동부 '업무-지식연계시스템 고도화' 수주



핸디소프트(www.handysoft.co.kr, 대표 황의관)가 노동부의 '업무-지식 연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주했다. 핸디소프트는 자사의 업무프로세스관리(BPM)와 BPM 기반 프로세스관리 솔루션인 '핸디

PAL'을 활용해 노동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화된 업무 노하우의 공유 및 신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본부 및 지·청 단위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업무처리 활용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 에듀인 3단계 고도화 사업도 수주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에듀인(EDUcation INnovation)'이란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혁신포털시스템'이다.

니트젠 '핑크햅스터 II' 발명의 날 우수제품 선정



지문인식업체 니트젠(www.nitgen.com, 대표 배영훈)의 지문인식스캐너 '핑크햅스터 II'와 출입통제기 'NAC-3000' 등 2개 제품이 제 42회 발명의 날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니트젠은 6월 18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특허청 주최로 개최된 제 42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핑크햅스터 II와 NAC-3000을 비롯, 11개 제품이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영훈 니트젠 사장은 "이번 선정으로 전 세계 60여 개 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핑크햅스터 II와 기존에 비해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인 NAC-3000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특허청은 이들 우수발명품 11개 제품을 정부 대전청사 중앙홀에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인프라밸리, LGT와 대용량 VMS 시스템 공급



모바일 솔루션업체 인프라밸리(www.infravalley.com, 대표 최영규)는 LG텔레콤과 대용량 VMS(Voice Mail Service)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용량 VMS 시스템은 기존의 소용량 VMS 시스템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LG텔레콤의 음성사서함 가입자 수용 능력의 확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1차 공급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대용량 음성 사서함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까지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용 개발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맥스, 태국 현지법인 계열사 추가



휴맥스(www.humaxdigital.com, 대표 변대규)는 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계열사에 추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현지법인 이름은 '휴맥스 타이랜드(HUMAX Thailand Co., Ltd)'로 자본금은 6,000만 원이다.

휴맥스는 태국 현지 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휴맥스 타이랜드를 통해 태국현지에서 STB 및 기타 디지털기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휴맥스는 그동안 해외 진출을 위해 2001년 일본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03년 인도법인과 이태리 밀라노 사무소 설립, 2004년 호주법인과 심천지사 설립, 2006년 폴란드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이번 휴맥스 타이랜드 설립으로 계열회사의 수는 휴맥스를 포함해 총 12개가 됐다.

VENTURE FOCUS

NHN서비스(주) 춘천사업장 개소



인터넷 검색포털 및 게임서비스 업체인 NHN서비스(주)(www.ns-corp.com, 대표 오승환)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크리스탈 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NHN서비스(주)본사 직원 600여 명과 춘천에서 채용된 신입사원 220명은 개소식을 마친 후 회사 로고 이미지가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하고, 춘천시내 곳곳을 도보로 이동하며 NHN의 춘천 이전 홍보와 함께 춘천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인크루트 3년 연속 '신뢰기업대상' 수상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는 2007년 '한국소비자의 신뢰기업대상'에서 취업·인사부문 '신뢰기업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인크루트는 3년 연속 신뢰기업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인크루트는 지난 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를 실시한 취업사이트로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채용 시장을 온라인 기반의 채용시장으로 변화시키고 확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선도기업이다.

한편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한국소비자의 신뢰기업대상'은 소비자들이 직접 관계업서와 인터넷으로 제품, 서비스, 소비자 보호 등 5가지 신뢰도 항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이뤄졌다.

잉크테크, 투명전자잉크 특허 5개 획득



잉크테크(www.inktec.com, 대표 정광춘)는 투명 전자잉크와 관련해 은(Ag) 착체화합물 등 원천특허 5개를 획득했다. 투명 전자잉크는 고체인 은이 상온에서 입자를 가지지 않고 액에 완전히 녹아 있는 신물질이며 여기에 열 처리를 하면 순수한 은만 남아 얇은 전도성 금속 박막을 형성해 전자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은 착체화합물은 다양한 반응 조건에서도 안정성, 용해성 등이 우수하고, 다양한 프린팅 방식에 맞는 잉크 제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손오공, 중국과 일본에 이어 '컴온베이비' 유럽 진출



손오공(www.sonokong.co.kr, 대표 최신규)은 독일 부르다 인터랙티브 커뮤니티스(www.burda-ic.com, 대표 Dr. Christoph Braun)와 유럽 지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손오공과 계약을 체결한 독일 BURDA사는 현재 국내 우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으며, BURDA사의 모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르 등 수백여 종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유럽 대표적인 출판미디어 그룹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컴온베이비'는 EU에 가입된 모든 나라에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며, 25만 달러의 계약금과 상용화 후 3년 동안 유럽 지역 서비스 총 매출액의 27%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안철수연구소, 11월 국제 바이러스 컨퍼런스 개최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m, 대표 오석주)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AVAR 2007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규모의 보안 컨퍼런스인 AVAR는 지난 1998년 6월

한국의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일본의 세이지 무라카미 JCSR(Japan Computer Security Research Center) 회장 등이 아시아 지역 안티바이러스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창립한 비영리 조직이다. 이번 AVAR 2007 국제 컨퍼런스는 제 10회째를 맞아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전문가, 각국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AVAR 사상 최대 규모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안티바이러스의 최근 트렌드와 신기술, 모바일 보안, 윈도 비스타의 보안 이슈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새로운 만남, MOU

이엔제이소프트, 날리지큐브와 '업무제휴계약' 체결



이엔제이소프트(www.enjsoft.com, 대표 박건화)와 날리지큐브(www.kcube.co.kr, 대표 김학훈)는 이엔제이소프트의 동영상 UCC 솔루션 '무비업'을 날리지큐브의 'K*Cube EKP (Enterprise Knowledge Portal)'에 컴포넌트로 제공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날리지큐브의 'K*Cube EKP'는 기업 사용자도 인터넷 사용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키지 소프트웨어이다. 날리지큐브는 금번 제휴계약으로 UCC를 통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로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고, 타사의 지식관리솔루션과 차별화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엔제이소프트는 '쉽고 재미있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Easy & Joyful Software) 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 변환, 편집, 전송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온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날리지큐브는 국내 지식관리 솔루션 분야 선두업체로서 기업용 지식포털 제품인 'K*Cube'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0여 개 기관과 기업에서 사용 중이다.

현대통신과 유진로봇, 로봇을 활용한 홈네트워크 사업제휴



현대통신(www.hyundaitel.com, 대표 이내흔)은 로봇 전문업체인 유진로봇(www.yujinrobot.com, 대표 신경철)과 로봇을 활용한 홈네트워크 사업제휴에 관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현대통신은 로봇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연동 및 서비

스 개발을, 유진로봇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로봇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고, 방문자 확인 및 문열림 등 출입관리, 침입감지 등 방범서비스 외에 음성 제어, 홈뷰어, 헬스케어 연동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보컴퓨터-엔씨소프트, 전략적 제휴(MOU) 체결



삼보컴퓨터(www.trigem.co.kr, 대표 박일환)는 국내 최대 게임 회사 엔씨소프트(www.ncsoft.com, 대표 김택진)와 전략적 제휴(MOU)를 맺고 리니지2 전용 PC 마케팅에 돌입,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보컴퓨터와 엔씨소프트는 6월 7일 용산에 위치한 게임대회장 인텔 e-스타디움에서 MOU체결 행사를 개최하고 삼보컴퓨터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캐릭터를 PC 전면부 디자인 컨셉에 적용, 디자인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리니지2 전용 PC로 게임 마니아용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인텔 코리아와 함께 국내 최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인텔 e-스타디움'을 연 삼보는 엔씨소프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임 PC 대중화에 앞장설 전략이다. PC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플랫폼 전문업체 인텔과 국내 최고 컴퓨터 전문 기업 삼보컴퓨터, 전 세계 50여 개국에 7천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협업 체계로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IT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씨지케이 - 바이테리얼즈, 신약개발 기술 제고 위해 기술 제휴



씨지케이(www.cgkglobal.com, 대표 김진환)와 바이테리얼즈(대표 채영진)가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기존 신약 후보 물질을

동정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노 분야 신약 개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 씨지케이는 신약개발에 사용 가능한 나노입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고 바이테리얼즈는 생명공학 분야에 접목시킬 실질적 나노입자의 특성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해 제휴를 맺게 됐다. 씨지케이는 세포 내 단백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화를 통해 인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 신약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바이테리얼즈는 희소성 있는 형광성 자성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기술을 갖췄다. 이 기술은 형광성과 자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개별 나노 입자의 한계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